

박용택 2500안타·NC 첫 우승...2020 KBO리그는 이랬다

신한은행 SOL KBO정규시즌 720경기 막 내려
코로나19로 대부분 무관중...시즌 막판까지 경쟁
신인 KT소형준, 데뷔 첫경기 승리 이후 13승
KIA 양현중, 현역 최다승 통산 147승으로 마감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 한 달 여 늦게 문을 연 2020 신한은행 SOL KBO 정규시즌이 지난 10월 31일 720경기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대부분이 무관중으로 진행됐지만, 종료일까지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며 그라운드에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안았다.

▲창단 첫 정규시즌 우승, NC의 전력

NC는 역대 3번째 단일 시즌 최장 기간 1위(5월 13일~10월 31일·172일)를 유지하며 창단 첫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했다.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선두를 달려온 NC는 5월 26일 창원 키움전에서 18경기 만에 15승을 거두며 1992년 빙그레와 2000년 현대(19경기)보다 한 경기 앞선 역대 최소경기 15승 신기록을 세웠다. NC의 압도적인 강세에는 새로운 얼굴들의 활약이 컸다. NC 구창모는 전반기 출장한 13경기에서 9승 무패를 기록했다. 개막 이후 5월 한 달간 KBO 리그 선발투수 중 가장 많은 35

이닝을 소화한 구창모는 단 2실점(2자책)만을 허용하고 평균자책점, 탈삼진, 승리, 이닝 당 출루허용률 등 각 부문 선두로 5월 MVP의 영예를 안았다. 강진성은 통산 5번째 연타석 대타 홈런 등 데뷔 첫 두 자릿수 홈런으로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했다. 후반기 NC의 선전에는 양의지가 있다. 올 시즌 주장이 된 양의지는 2020 KBO 미스터 올스타와 더불어 9월 한 달간 32타점으로 타점 부문 1위를 차지하며 KBO 리그 데뷔 후 첫 월간 MVP(9월)에 선정됐다. 33홈런으로 2018년 기록한 본인의 한 시즌 최다 홈런(23개)을 경신한 양의지는 30홈런-100타점, 150홈런, 7년 연속 10홈런, 2,000루타 등을 달성했다.

▲최고 신인 소형준, 여전했던 베테랑

1차지명으로 KT에 입단한 소형준은 5월 8일 잠실 두산전에서 본인의 KBO 리그 데뷔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두 번째로 등판한 경기에서도 승리하며 양일환(1983 삼성),



김진우(2002 KIA), 류현진(2006 한화)에 이어 통산 4번째 신인 데뷔전 이후 2연속 선발승을 기록했다. 9월 12일 수원 한화전에서 역대 9번째 고졸신인 데뷔 시즌 선발 10승을 기록한 소형준은 올 시즌 26경기에서 13승을 올리며 SK 박종훈과 함께 다승 7위로 정규시즌을 마무리했다. 가장 주목 받은 베테랑은 단연 LG 박용택이다. 송진우(한화, 21시즌), 김강민(SK, 20시즌), 권오준(삼성, 20시즌)에 이어 역대 4번째로 긴 19시즌 동안 LG와 함께한 박용택은 통산 2236경기에 출장, 종전 KIA 정성훈이 기록한 2223경기를 13경기 차로 넘어섬에 최다 경기 출장 신기록을 세웠다. 10월 6일 잠실 삼성전에서는 리그 최초로 2500안타를 달성하며 LG의 가을야구 진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기대를 뛰어넘은 외국인 선수들

의 활약
한화 서포드는 5월 28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17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했다. 2012 LG 주키치, 2015 NC 해커가 남긴 14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를 넘어 외국인 최다 연속 경기 퀄리티스타트 신기록을 이었다. 두산 플렉센은 9월 22일 대전 한화전에서 시즌 처음이자 통산 30번째로 선발 전원 탈삼진을 기록했다. 팀 동료인 알칸타라는 10월 8일 문학 SK전에서 2회 9번의 투수로 세타자를 범퇴시키며 통산 7번째 이닝 최소투구 탈삼진 기록을 세웠다. KIA 브룩스는 올 시즌 유일한 무사사구 완봉승과 함께 외국인 투수 데뷔전 이후 최다 연속이닝 무볼넷 신기록을 세웠다. 외국인 타자 부문에서는 KT 로하스가 압도적이다. 로하스는 올 시즌 65경기 만에 100안타를 달성하



며 LG 박용택(2009), 롯데 김문호(2006)와 함께 역대 2번째 최소경기 100안타를 달성했다. 5월 23일과 7월 21일 LG전에서는 역대 3,4번째 좌우 연타석 홈런을 연달아 기록했다. 로하스는 홈런, 타점, 득점, 장타율 등 4개 부문 1위로 시즌을 마쳤다.

▲2020 시즌 주목 받았던 투수·타자... 그 밖의 기록들

키움 이정후는 10월 16일 고척 두산전에서 48번째 2루타로 시즌 최다 2루타 신기록(최종 49개)을 세웠다. 같은 팀 김하성은 6년 연속 200루타, 20홈런-20도루, 30홈런-100득점-100타점 등의 기록과 함께 개막 이후 21연속 도루로 종전 LG 김재현(1994)의 KBO 최다 연속 도루 기록(19개)을 경신했다. KIA와 SK의 주장인 양현중과 최정은 기록도 주장급이었다. 올 시즌 11승을 올리며 현역 최다승인 통산

147승으로 시즌을 마감한 양현중은 역대 5번째 7년 연속 10승과 함께 역대 7번째 7년 연속 100탈삼진을 기록했다. 15년 연속 10홈런을 기록한 SK 최정은 6월 11일 잠실 LG전에서 최연소 3000루타를 달성하며 견제를 과시했다. 9월 13일 문학에서는 동생 SK 최항과 함께 롯데 박세웅을 상대로 홈런을 쳐내며 KBO 리그 최초로 같은 팀 형제선수가 같은 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뽑아내는 진풍경을 만들어냈다. 2015년 롯데에 입단한 오윤석은 10월 4일 사직 한화전에 선발 출장해 역대 처음으로 만루홈런을 포함한 사이클링 히트를 만들어내며 팀의 대승을 견인했다. 데뷔 7년차인 삼성 강한울은 9월 25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종전 오재환의 1040타석보다 505타석 더 늦은 1545타석만에 홈런을 쏘아 올리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동국 아름다운 피날레...전북, K리그 첫 4연패+최다우승

K리그 통산 548경기 228골로 커리어에 마침표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K리그1 사상 첫 4연패와 더불어 역대 최다우승(8회)을 달성하며 K리그 최강자로 우뚝 섰다. '전설' 이동국은 은퇴 경기에서 우승컵을 들며 아름다운 피날레를 장식했다. 전북은 1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0 파이널 A 27라운드 최종전 홈 경기에서 조규성의 멀티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전북은 19승3무5패(승점 60)를 기록하며 울산 현대(승점 57)를 따돌리고 2017년·2018년·2019년·2020년까지 K리그1 4연패 금자탑을 세웠다. 리그 4연패는 전북이 처음이다. 또 전북은 통산 8회(2009년·2011년·2014년·2015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우승으로 성남FC 전신인 성남 일화(7회)를 제치고 K리그 역대 최다우승팀이 됐다. 1994년 창단한 전북은 2005년 최강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K리그 전 통의 강자로 떠올랐다.

2006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아시아 정상에 오른 전북은 2009년 K리그 첫 우승으로 본격적인 '전북 시대'를 열었다. '봉동시장'으로 불린 최 감독의 탁월한 지도력에 전북은 K리그 절대 '1강'으로 자리매김했다. 최 감독이 지난해 전북을 떠나기 전까지 무려 6개의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포스트 최강의 시대를 연 주인공은 조세 무리뉴 감독의 코치로 유망세를 쌓은 조세 모라이스(포르투갈) 감독이었다. 무리뉴 감독과 함께 유럽 무대에서 트래블(리그·FA컵·UEFA 챔피언스리그)을 경험한 모라이스 감독은 부임 첫해 전북의 아시아 트래블(리그·FA컵·AFC 챔피언스리그)을 목표로 세웠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FA컵과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했고, 울산과의 선두 경쟁에서 밀려 시즌 내내 불안한 행보를 걸었다. 하지만 전북은 '우승 DNA'를 앞세워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최종전에서 서번드시 이겨야 우승이 가능했던 전



1일 오후 전북 전주 덕진구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전북 현대모터스vs 대구 FC의 경기, 전북 조규성이 멀티골을 넣고 이동국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북은 강원FC를 이겼고, 울산이 포항 스틸러스 저 짜릿한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모라이스 체제에서 K리그1 3연패에 성공한 전북은 올해도 추격자 입장에서 울산과 선두 경쟁을 펼쳤다. 한때 승점 5점 차까지 뒤지며 우승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끈질긴 추격 끝에 지난 26라운드 울산 원정에서 1-0으로 승리하며 선두로 올라섰다.

대구전에서 비기지만 해도 우승이 확정됐던 전북은 최종전을 앞두고 현역 은퇴를 선언한 이동국을 최전방에 원톱에 세우며 아름다운 피날레를 준비했다. 전주성엔 가을비가 내리는 악조건에도 떠나는 이동국의 마지막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1만251석의 만원 관중이 들어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경기장 수용인원의 최대 25%만 입장이 가능했다. 이동국은 전반 12분 전매특허인 오른발 발리슛을 시도했으나,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득점에 실패했다. 전반 20분엔 2분간 이동국을 향한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20분은 이동국의 등번호 20번을 의미한다.

키움 박병호 "내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LG와 KBO와이드카드 결정전 1차전

한 경기만 패하면 시즌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키움 히어로즈 4번타자 박병호는 "내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시리즈에 임하는 출사표를 대신했다. 키움은 2일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와 2020 KBO 와이드카드 결정전 1차전을 갖는다. 당초 1일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취소돼 하루 미뤄졌다. 와이드카드 결정전은 최대 2경기가 진행된다. 정규시즌을 4위로 마친 LG는 한 경기만 잡아도 두산 베어스가 기다리고 있는 준플레이오프에 안착할 수 있다. 반면 정규시즌 5위로 가을 야구 막차를 탄 키움은 두 경기를 모두 쟁야 살아남는다. 그동안 포스트시즌만 41경기를 치른 박병호에게도 생소한 경험이다. "5위로 올라왔기에 한 번 지면 끝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경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을야구 첫 번째 경기이지만 마지막 경기라 될 수도 있다. 후회없이 끝까지 집중해서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막 전 강력한 우승후보로 분류됐던 키움은 여름까지 선두 경쟁을 벌였



지만 이후 페이스가 크게 떨어져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사령탑 교체라는 충격요법도 소용 없었다. 박병호는 "가을야구에는 정규시즌에 잘하는 선수가 못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점수가 확 벌어지지 않는 이상 영웅들이 나타났는데 모든 선수들이 영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팀 승리를 기원했다. 박병호는 지난해 준플레이오프의 MVP였다. 당시 박병호는 타율 0.375(16타수 6안타), 3홈런, 6타점의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팀을 플레이오프로 인도했다. 공교롭게도 상대는 올해 다시 만난 LG다.

삼성에 부는 칼바람...투수 정인욱·외야수 박찬도 방출

올 시즌 정규리그 8위에 그쳐 포스트시즌 진출이 좌절된 삼성 라이온즈가 선수단 재정비에 나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삼성 구단의 요청에 따라 10월 31일 투수 정인욱(30)과 외야수 박찬도(31)를 웨이버 공시했다. 2009년에 입단한 정인욱은 2010년 1군에 데뷔했으며 유망주로 관심을 모았다. 1군 데뷔 2년차인 2011년 6승 2패 평균자책점 2.25의

준수한 성적을 거뒀고, 2016년에는 주로 선발로 뛰며 27경기에 등판해 111이닝을 소화했다. 하지만 좀처럼 기량이 만개한 모양을 보이지 못했다. 점차 출전 기회가 줄어들었고, 결국 2020시즌을 마친 뒤 방출 통보를 받았다. 1군에서 통산 156경기에 등판한 정인욱은 19승 20패 1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5.51을 기록했다. 박찬도도 방출의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2012년 육성 선수로 삼성에 입단한 박찬도는 2013년 1군 무대에 첫선을 보였고, 2015년에는 116경기에 출전하기도 했다. 박찬도는 올해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으나 타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 자리를 잡지 못했다. 박찬도는 올 시즌 51경기에서 타율 0.219 1홈런 8타점 5도루 20득점에 머물렀다.

OK금융그룹, 우리카드 꺾고 4연승...1위 탈환

OK금융그룹이 개막 후 4연승을 달려 리그 1위로 올라섰다. OK금융그룹은 1일 안산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3-2(20-25 25-16 23-25 25-16 22-20)로 역전승을 거뒀다. 개막 후 파죽의 4연승(승점 10)을 올린 OK금융그룹은 KB손해보험(3승·승점 9)을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올라섰다.

KB금융그룹 주요 펠리페(27점)와 송명근(24점), 진상현(15점)이 맹활약을 펼쳤다. 송명근은 승부를 결정짓는 서브에 이스를 포함해 4개의 서브를 성공시켰고, 펠리페는 중요한 순간에 득점력을 뽐냈다. 진상현은 블로킹득점 5개를 기록했고, 90%가 넘는 공격성공률을 자랑했다. 우리카드는 시즌 1승4패(승점 5)를 기록해 5위에 머물렀다.